"군민생활 안정 최우선"

전춘성 진안군수, 11개 읍 · 면 연초방문 마무리… "군민 의견 적극 반영"

"민생안정 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신속히 지급하고 민생안정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2025년 읍·면 연초방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민심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에서 그는 민생안정 대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전 군수는 "지난해 연말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민생안정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민생안정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군수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이 있어,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내리라 믿는다"며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다는 근고지영(根固枝榮)의 자세로 군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진안군을 지탱하는 뿌리는 군민이다"라며 "올 한해 군민 한분 한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진안의 미래를 열기 위해 더 과감하게, 더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읍·면 연초방문을 진행했다.

전 군수는 △8일 진안읍, 안천면 △9일 백운면, 부귀면 △10일 마령면 △13일 정천면, 용담면 △14일 동향면, 상전면 △15일 주천면, 성수면을 찾아 읍면 기관사회단체장과 인구감소·소멸위기 극복 동참 협약을 맺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청취했으며, 민생현장과 사업현장 및 소득사업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군은 방문지별 주민 건의 사항이 최종 취합되면 관련 실과소별로 현지 출장 및 주민 상담을 통해 처리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주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모두가 누리는 복지 공동체 실현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공유회 개최… 발전 방향 · 계획 공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사업공유회가 16일 무주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무주군 사회복지 발전 방향과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관계 공무원,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우리 군은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실현에 집중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과 장애인·어르신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 증진, 저소득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에 힘써 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이규평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올해도 무주군 복지 증진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의회가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각 시설과 단체,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군민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발족된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는 현재 20개 단체가 소속돼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사랑 나눔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비와 의료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11월부터 한 달간 3천3백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올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의뢰한 대상자를 배분 심사해 지원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청년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장수군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한 농업경영 인력을 육성하고자 오는 2월 5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50세 미만(25년 사업기준 1975.1.1~2007.12.31 출생자)의 독립경영 10년 미만(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선정 후 5년까지 세대당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연1.5%의 고정금리,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기준이며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25년 사업기준 1985.1.1~2007.12.31 출생자)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선정된 청년농은 영농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 후계농업경영인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들은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며 "열정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서류평가, 청년농업인은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친 후 4월에 최종 선발대상자가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원예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신청

진안군은 오는 20일에서 2월 3일까지 '2025년 원예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총 16개사업 34개소로 총사업비는 20여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시설원예분야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범 외 4개 사업 △원예작물분야 병해충방제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외 2개 사업 △스마트팜분야 스마트 방제로봇 시범 외 3개 사업 △과수 분야 무인방제 과수 종합관리 시범 외 3개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원예작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세부 내용은 진안군청 누리집 농업기술센터 공지 사항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업인 역량 강화 주력

반딧불농업대학 운영

무주군이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25년도 반딧불농업대학을 운영한다. 올해는 사과과와 심화 과정을 비롯해 농업마케팅과와 수박과 등 총 3개 과정이 개설됐으며 과별로 40명씩 총 12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민으로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과 농업인상담소,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으로 방문·접수하거나 담당자 전자메일(muju197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과정이며 사과과는 매주 화요일, 농업마케팅과는 목요일, 수박과는 금요일에 4시간씩 진행된다.

내용은 △재배 기술 이론 및 실습, △병해충 관리 및 예방 기술, △농업 관련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되며 △농기계 안전 사용 및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 등은 공통과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학동마을, 얼음썰매장 · 겨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 정천면 학동마을(이장 최명근)에서 17일부터 얼음이 녹을 때까지 얼음썰매장과 겨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동마을 계곡은 여름 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매년 얼음이 어는 천연 썰매장이다.

이번 얼음썰매장은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한다. 얼음 썰매 타기(입장료 3천원)와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군밤 구워 먹기, 쫀드기 구워 먹기 등 유료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한 학동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활용해 어묵, 떡볶이, 라면, 김밥, 우동 등 먹거리도 판매한다.

이번 얼음썰매장 개장과 겨울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농번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총력

장수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전문 수렵인 3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까지 야생동물 피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포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과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초부터 활동을 시작한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에 주력하고 있다.

수렵 활동은 수렵 활동 제한지역을 제외한 장수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며 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출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농작물 피해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2,430마리(멧돼지 645마리, 고라니 1400마리 등)를 포획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도로에서의 야생동물 관련 사고 발생도 크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 모집

진안군은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기반마련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상·하반기로 통합 운영되며, 2월부터 9월까지 총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이다.

모집인원은 35명 내외로 공공근로 사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진안군 일자리센터 (진안읍 대성길 7-8)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공근로 사업 신청자는 선발자격 검증을 통해 선발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선발되게 되며, 최종 선정자는 사무보조, 환경정비 등의 공공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